

1. 시계편(始計篇)

시계(始計)란 최초의 근본적인 계획을 뜻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대책을 의미한다.

손자병법의 총론이라 할 이 편에서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전쟁에 앞서 이해득실과 승산의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孫子曰 兵者는 國之大事라 死生之地오 存亡之道니 不可不察也니라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오, 국민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걸린 것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孫子曰 兵者는 國之大事라 死生之地오 存亡之道니 不可不察也니라

故로 經之以五事하고 校之以計하여 而索其情하나니
고 경지이오사 교지이계 이색기정

그러므로 다섯 가지 요건(五事)으로써 (국력의 기본을) 헤아려 보고, 일곱 가지 계(七計)로써 비교하여 그 정세를 파악해야 한다.

故로 經之以五事하고 校之以計하여 而索其情하나니

一曰道오 二曰天이오 三曰地오 四曰將이오 五曰法이니
일왈도 이왈천 삼왈지 사왈장 오왈법

(다섯 가지 요건이란 첫째는 도(道)요, 둘째는 하늘(天)이요, 셋째는 땅(地)요, 넷째는 장수(將)이요, 다섯째는 법(法)이다.

一曰道오 二曰天이오 三曰地오 四曰將이오 五曰法이니

道者는 令民으로 與上同意하여 可與之死 可與之生하여 而民不畏危也오
도자 령민 여상동의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민불외위야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뜻을 같이 하여, 가히 함께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여,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道者는 令民으로 與上同意하여 可與之死 可與之生하여 而民不畏危也오

天者는 陰陽, 寒暑, 時制也오 地者는 遠近, 險易, 廣狹, 死生也오
천자 음양 한서 시제야 지자 원근 험이 광협 사생야

하늘이란 음양·한서·시제(천기, 시기)이다. 땅이란 멀고 가까움, 험난하고 평탄함, 넓고 좁음, 사지와 생지를 뜻한다.

天者는 陰陽, 寒暑, 時制也오 地者는 遠近, 險易, 廣狹, 死生也오

將者는 智 信 仁 勇 嚴也오 法者는 曲 制 官 道 主 用也라
장자 지신인용엄야 법자 곡제관도주용야

장수는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어질고 용기와 위엄 또한 있어야 한다. 곡제란 군의 편성을, 관도는 군대의 직제와 복무규정을 뜻하며, 주용이란 물자와 병기를 가리킨다.

將者는 智 信 仁 勇 嚴也오 法者는 曲 制 官 道 主 用也라

凡 此五者를 將莫不聞이나 知之者 勝하고 不知者 不勝이니라
범 차오자 장막불문 지지자 승 부지자 불승

이 다섯 가지를 듣지 못한 장수는 없을 것이나, 이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凡 此五者를 將莫不聞이나 知之者 勝하고 不知者 不勝이니라

故로 校之以計하여 而索其情하나니
고 교지이계 이색기정

그러므로 계(計)로써 비교하여 그 정세를 파악해야 하니,

故로 校之以計하여 而索其情하나니

曰 主孰有道며 將孰有能이며 天地孰得이며 法令孰行이며
왕 주숙유도 장숙유능 천지숙득 법령숙행

군주는 어느 쪽이 도의적이며, 장수는 누가 더 능력이 있으며, 천지는 누가 더 얻고 있으며, 법령은 누가 더 잘 운용하고 있으며

曰 主孰有道며 將孰有能이며 天地孰得이며 法令孰行이며

兵衆孰強이며 士卒孰練이며 賞罰孰明인가 吾 以此로 知勝負矣니라
병중숙강 사졸숙련 상벌숙명 오 이차 지승부의

군대는 누가 더 강하며, 장병은 누가 더 훈련 잘 되었으며, 상벌은 누가 더 공명한가, 나는 이 일곱가지로써 승부를 안다.

兵衆孰強이며 士卒孰練이며 賞罰孰明인가 吾 以此로 知勝負矣니라

將聽吾計用之면 必勝이라 留之하고 將不聽吾計用之면 必敗라 去之니
장청오계용지 필승 류지 장불청오계용지 필패 거지

장수가 나의 계(計)를 듣고 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나는 머물 것이고, 장수가 나의 계를 듣고 쓰지 않으면 반드시 질 것이니 나는 떠날 것이다.

將聽吾計用之면 必勝이라 留之하고 將不聽吾計用之면 必敗라 去之니

計利以聽하고 乃爲之勢하여 以佐其外니 勢者는 因利而制權也오
계리이청 내위지세 이좌기외 세자 인리이제권야

이익을 헤아려 듣게 되면 세(勢)가 만들어져 외연을 확장하게 되니, 세(勢)라는 것은 이익으로써 임기응변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計利以聽하고 乃爲之勢하여 以佐其外니 勢者는 因利而制權也오

兵者는 詭道也라 故로 能而示之不能하고 用而示之不用하며
병자 계도야 고 능이시지불능 용이시지불용

용병이란 적을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능하면서 능치 않은 듯이 보이고, 쓰면서도 쓰지 않는 듯이 보이며

兵者는 詭道也라 故로 能而示之不能하고 用而示之不用하며

近而示之遠하고 遠而示之近하며 利而誘之하고 亂而取之하며
근이시지원 원이시지근 리이유지 난이취지

가까우면서도 먼 것처럼 보이고, 멀면서도 가까운 것처럼 보이며, 이롭게 해서 적을 유인하고, 혼란하게 하여 (이를) 취하며

近而示之遠하고 遠而示之近하며 利而誘之하고 亂而取之하며

實而備之하고 強而避之하며 怒而撓之하고 卑而驕之하며
실 이 비 지 강 이 피 지 노 이 요 지 비 이 교 지

적이 충실하면 대비하고, 적이 강하면 피하며, 노하게 하여 등요케하고, 나를 낮추어 적을 교만하게 하며

實而備之하고 強而避之하며 怒而撓之하고 卑而驕之하며

佚而勞之하고 親而離之하며 攻其無備하고 出其不意하나니
일 이 노 지 친 이 리 지 공 기 무 비 출 기 불 의

적이 편안하면 수고스럽게 하고, 적이 서로 친하면 이간시키며, 대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나니

佚而勞之하고 親而離之하며 攻其無備하고 出其不意하나니

此는 兵家之勝이라 不可先傳也니라

차 병가지승 불가선전야

이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만, 먼저 (적에게) 알려저서는 안되는 것이다.

此는 兵家之勝이라 不可先傳也니라

夫 未戰而廟算勝者는 得算多也오 未戰而廟算不勝者는 得算少也라

부 미전이묘산승자 득산다야 미전이묘산불승자 득산소야

대체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회의의 평가에서 이긴다는 것은 판단된 승산이 많은 것이고, 전쟁 전 조정 평가에서 이기지 못할은 판단된 승산이 적은 것이다.

夫 未戰而廟算勝者는 得算多也오 未戰而廟算不勝者는 得算少也라

多算이 勝하고 少算이 不勝이오니 而 況於無算乎아
다산 승 소산 불승 이 황어무산호

승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승산이 전혀 없으면 어떠하겠는가.

多算이 勝하고 少算이 不勝이오니 而 況於無算乎아

吾 以此觀之하여 勝負를 見矣니라
오 이차관지 승부 견의

나는 이러한 것을 봄으로써 전쟁의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느니라.

吾 以此觀之하여 勝負를 見矣니라